

## 1. 소개

안녕하세요. 임용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나도 꼭 합격수기를 적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합격수기를 쓸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준 우리 스터디원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전태련 교수님, 대방 교수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부를 시작하며 막막했던 시기, 여러 합격수기를 보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공부하며 막막하고 힘들었던 시기, 또 합격수기를 보며 다독거리며 그 시기를 지나왔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이 정답은 아니니 필요한 부분에 있어 참고하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강의

### ▶교육학 : 전태련 교수님, 1년 강의 수강

처음 임용을 시작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교육학 강의를 어떤 걸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임용을 하는 중간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교수님 강의를 보는 분도 있고, 중간에 다른 교수님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두려움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엔 정보가 없어서 샘플강의를 찾아보다가 막연히 태련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수강을 결심했어요.

목차 짜며 공부하기, 자료, 교수님의 수업방식 등 점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저는 수업중간에 해주시는 마음조절에 대한 말씀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임용이 열심히 한 사람이 붙는 시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공부해보니 자기 마음관리를 끝까지 잘 해나가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강하고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임용공부를 하다 보니 갑자기 우울하고 눈물 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힘든 시기, 선생님의 조언과 말씀들, 특히, '다행이다' '괜찮다'를 말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했기에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또한 1차 이후에도 2차 면접 준비에 대한 자료, 스터디원 모집기회, 또 합격했던 분들과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방향을 잘 잡고 좋은 스터디원들과 잘 준비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전공 : 전공 강의는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다른 학원들도 몇 군데 있었지만 대방 같은 경우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다르셔서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일 될 것 같았고, 유명하기도 하여 3-5월, 7-8월 모두 저는 직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9월-11월에는 박문각에서 진행되는 영양교사 모의고사 강의를 직강으로 수강하면서 진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간을 지키며 시험보고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시험 때 제가 종종 자신이 없던 문제를 남겨두고 답안을 작성하면서 번호에 밀려서 답안을 작성하던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서 시험 때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칸 안에 정확한 키워드가 들어가게 답을 작성할 수 있는 지 등을 생각할 수 있어 저는 시험 준비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3. 시기별 공부 방법 (1년 계획)

#### 1) 1-2월 : 교육학 위주 공부

1월 달에는 계절 학기를 수강해야 했고, 2월 초에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이 있어 욕심내지 않고 1-2월 달에 진행되는 전태련 교수님 강의를 철저하게 공부하자는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전공은 영양사 시험이 있어 국가고시 공부 때문에 조금 했고, 월·화요일에는 직강 강의를 들었습니다. 앞자리에 앉고 싶어 5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7시 좀 전에 강의실에 도착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2월 달 시험이 다가오면서 조금 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자리에 앉으시는 옆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교수님의 기운을 조금 더 받으며 자극받아 공부하고 싶어서 그때는 열정이 넘칠 시기여서 그랬는지 그렇게 수업을 들었네요. 월, 화요일에는 그날 했던 수업에 대해 목차를 확인해 보면서 복습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솔직히 수요일은 살짝 쉬었던 것 같아요. 월, 화 일찍 일어나 학원가서 그런지 약간 지쳐서 조금 쉬면서 전공공부 했고,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월-화에 그려놓은 목차를 보면서 다시 내용을 상기하고,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 2) 3-5월

3월부터는 전공강의도 시작되기 때문에 매일 노량진까지 오고가는 데 힘들 것 같아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전공 같은 경우, 수-토요일까지 4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되는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그날배운 부분 복습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일요일에 오전에 교회를 갔다 와 조금 쉬고 전공공부 못한 부분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학의 경우, 1-2월에 열심히 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보고 추가되는 부분 강의를 들으면서 눈이 굴리면서 크기가 커지는 것처럼 조금씩 가지를 넓혀가면서 공부해 나갔습니다.

#### 3) 6월

6월에는 전공강의가 없어, 고시원에 살면서 혹시나 생활패턴이 깨질까 고시원 근처 헬스장에서 아침에 운동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하면 공부하느라 지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힘이 나더라구요. 하지만 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헬스장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ㅎㅎ (태련쌤이 알려주신 스트레칭, 스쿼트, 산책정도로만 운동했어요. 스트레칭 완전 중요합니다. 나중에 머리-어깨-무릎-발 다 아파요..ㅠ) 무튼, 전공강의가 없어 이 시기에는 3-5월 전공 공부한 부분을 1회독 하려 계획을 세우려 했으나, 한 주를 해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8월까지 꼼꼼히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6월 달에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전공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학은 3-5월과 마찬가지로 공부했고, 하루에 1시간을 최소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안보면 또 가물가물해져 최대한 자주자주 보도록 계획하고 공부했습니다.

#### 4) 7-8월

대방 열림의 7-8월, 수-토요일까지 문제풀이 직강으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매일 복습하고 예습까지 해나가야 했고, 날씨도 덥고 하여 많이 지쳐 힘들었지만, 스터디원들과 같이 공부했기에 끝까지 완강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문제풀이 강의는 내가 직접 풀어보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토요일에는 복습은 짧게 하고 예습에 초점을 두었고 일요일에 최대한 그 주의 진도를 복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육학의 경우, 문제풀이-모의고사 강의를 진행되며 '실전특독'으로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서브노트는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말 안 듣고 저는 만들었어요... 대신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읽으면서 (다행히 제가 타자가 좀 빨라서) 제 말로 바꿔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말로 정리하는 게 공부가 잘 되어 이렇게 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은 보고 또 보고, 자주보기를 항상 생각하세요!**

**7-8월 전공**

\*\*6월 스테디 자료로 공부, 백지쓰기 시작하기 꼼꼼히 복습하기

식품학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판정	영양교육	단체급식	위생학	조리원리	식사요법
수분	혈액골격비노	임신기	대방 진도 맞춰 끝내기	이론은 매주 보고 백지쓰기 나머지 찬찬히 읽기	1단원	12단원	개요, 곡류	개요
탄	탄	수유기			2단원	3단원	곡-두류	소화기계
단	단	영양기			3단원	3단원	육어패류	간 담낭 췌장
지	지	유아 아동기			4단원	3단원	난류 우유	알레르기
효소	에너지 식이섬유	청소년기			5단원	5단원	과일채소	순화계
갈변	항산화	성인			6단원	6단원	해조버섯 당류	당노,비만
색	호르몬	노인			7단원	4단원	유지 조미료	비노
맛향	비타민 무기질	운동			8단원	7단원	서류	빈혈, 골격계

**5) 9-11월, 시험까지**

전공강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시원에서 나와 집으로 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 강의를 없어 혼자 계획을 세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에 걱정도 컸지만 기존의 스테디원 중 한 분과 짝 스테디를 하면서 서로 때론 채찍질하고 격려하고 의지하며 이 시기를 보냈습니다. 공부는 이전 시기에도 전공 책을 보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놓았던 서브노트에 첨가하는 식으로 단권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책 잘라서 붙이면서 보았습니다. 이때도 항상 태련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하기 전, 목차를 그리고 생각한 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육학의 경우, 계속 태련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고, 이때는 이동시간을 아끼려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모의고사를 보기 전 관련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주셔서 논술에 대해 조금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감을 조금씩 찾으며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답안작성에 틀 잡는 것, 시간을 안배하는 것, 직접 써보는 연습 등 실제 시험처럼 연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9-11월에 가졌기 때문에 1교시 교육학을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공공부에 이 시기에 많은 시간을 교육학에 투자하지 못했지만 틈틈이 7-8월에 만든 서브노트 보며 생각하고 목차 굴리고, 모의고사 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4. 전공 공부방법

##### 1) 다른 교재 (전공책 등)

-‘전공책을 보지 않아도 된다. 봐야 한다’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셨는데, 제가 공부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3-5월은 일주일에 대방수업이 4번이니,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더라구요. 3-5월에는 대방교재로 확실히 뼈대를 잡는다고 공부하시고, 6월에는 확실하게 정리 그리고 7월부터 참고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서도 같이 볼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교재만 보고도 합격했다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되도록 과목별 1권 정도는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3-5월에는 수업하는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어서 **영양교육, 조리원리, 고급영양학** 과목만 거의 전공책 본 것 같고, 중간 중간 다른 과목들은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조리원리, 영양교육, 식사요법**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10-11월 시기 때는 영양판정, 생애주기, 고급영양학, 단체급식 과목도 보면서 사진, 그래프 등 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면서 단권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참고서는 최신판 아니고 학부 때 쓰던 교재 그대로 보기도 했고, 조리원리만 최신판으로 구매해서 보았습니다.

고급영양학	21세기 영양학 (교문사)
식품학	이해하기 쉬운 식품학(파워북), 식품학(교문사), 식품학(수학사)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았어요.
조리원리	이해하기 쉬운 조리과학(교문사), 과학으로 풀어쓴 식품과 조리원리(교문사) →많이 보는 책
식사요법	식사요법 (광문각), 식사요법(파워북)
영양교육	영양교육 및 상담의 실제(라이프사이언스) →많이 보는 책 영양교육과 상담(교문사)
영양판정	영양판정 및 실습(파워북)-그림 많음 영양판정(교문사)
생애주기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교문사)
단체급식	급식경영학(교문사), 단체급식(교문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학(수학사)

##### 2) 공부 방법

먼저, 최대한 저는 꼼꼼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마다 큰 틀을 잡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과목의 시험문제를 보면 단순한 암기만 물어보는 것보다 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세세한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원들과 또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나올 것 같은 예상문제들을 많이 보긴 했지만, 세세한 부분도 되도록 봐서 눈에 익도록 했습니다.

또,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제 공부방식이, 한번 제 언어로 보기 좋게 구상하고, 틀을 짜고 그걸 보면서, 전공서 등 참고서내용을 계속 붙여나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3월 대방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고민하지 않고 서브노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5월은 9-5시 정도까지 수업 듣고, 고시원에 와 밥 먹고 바로 그날 공부한 부분, 서브노트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꼭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공부할 분량이 많아 9월 10월 가면 자료가 많아 정신없고 보기 힘들실 수도 있으니, 만든다면 3월부터 바로 만드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 만드는 분들도 많고, 필요한 부분만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르니, 잘 생각해보시고, 방향을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차 짜기 했습니다. 전태련 교수님이 항상 강의 중에 강조하신 부분이라 전공도 큰 틀을 짜고, 줌인-줌아웃 하면서 항상 공부하기 전 이를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작년 시험 삼에 본 시험에서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생각이 나지 않던 단어 하나가 시험 끝날 때 쯤 머릿속에 뇌리가 박히듯 딱! 올랐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최대한 인출이 잘되도록 공부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방향에 있어 목차 짜기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시험시간은 공부하는 때와 다르게 짧은 시간 내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목차를 짜며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5. 기출분석 & 스터디

(\*월별 공부계획에 넣을까 하다가, 따로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따로 적겠습니다. 전공내용 적겠습니다)

### 1) 3-5월

기출분석은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스터디원들과 함께 2주정도의 시간을 갖고 과목별로 문제를 분류한 뒤, 취합해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수업이 진도에 맞춰 해당하는 부분을 풀고 이에 대해 같이 답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전공 공부를 하다보면 방대한 공부양에 방향을 잃을 수 있는데 그 방향은 기출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여 3월 전공공부 시작할 때 함께 기출문제 분석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해야하나 하는 문제들을 기출문제를 분석하며 많이 해결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모두 초수여서 처음에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조금 버거운 면도 있었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니, 생각보다 어느 정도 답이 구상되었고, 아주 모르겠다면 책, 다른 선생님들, 학원 교수님들에게 물어보거나 미뤄뒀다가 조금 더 공부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보고 푸는 방법으로 5월까지 모든 영양기출문제를 보았습니다.

	수	목	금	토
	식사요법	생애주기	단체급식	식품학
	조리원리	영양교육/판정	식품위생학	고급영양학
1주(3.15-18)	슬기 - 수정	선우 - 소연	소희 - 연경	슬기,수정,선우 - 소연,소희,연경
2주(22-25)	소희 - 연경	슬기 - 수정	선우 - 소연	소연,소희,연경 - 슬기,수정,선우
3주(29-4.1)	선우 - 소연	소희 - 연경	슬기 - 수정	슬기,수정,선우 - 소연,소희,연경

또한 이 시기에는 6명에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매주 각자 과목을 돌아가면서 정해두고 매주 한번씩 빈칸이나 단답형의 10문제를 내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 6월

6월 달에는 3명에서 백지쓰기 스터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1번씩 돌아가면서 2과목 정도씩 맡아 해당 범위 내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핵심내용 등에 대해 직접 써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줄 정도로 문제를 내는 자료를 만들어가며 공부했습니다. 3-5월. 3달 강의를 쉬지 않고 진행해와 6월에 지치고 쳐질 수 있었지만 스터디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1		식약요법	조리원리	영양교육	영양판정	생애주기	위생학	단체급식	고급영양	식품학
2	6월 5~9일	1,2단원	2단원	1,2,3단원	1-3단원		1,2,3단원 (p68-계급 및 바이러 스형 식중독까지)	1,2,3단원		
3	6월 12~16일	3,4단원	3단원	4,5단원	4단원		3단원(p68화학생 식중 독) ~ 4단원	4,5단원		
4	6월 19~23일	6,8,9단원	4단원	6,7,8단원	5단원		5,6단원	6,7단원(p141까지)		
5	6월 26~7월1일	4,7,10단원	1.5단원		영판6-7&식,요5단원		7,8단원	7단원(p141부터) 8단원		

## 3) 7-8월

사실 7-8월에는 학원 강의를 너무 바빠 따로 스터디자료는 만들지 않았고, 6월에 만들어 놓은 백지쓰기 자료를 가지고 틈틈이 써보면서 공부했고, 스터디원들과는 점심시간 밥 먹으면서 물어보는 식으로 처음에는 장난처럼 했는데, 하다 보니 그 기억이 나더라구요. ‘그때 누가 틀렸었지, 누가 이 문제 냈었지’ 하면서 그 사람 목소리도 생각나고 잘 몰랐고 안 외워지던 부분도 이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 4) 9-11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짝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집이 가깝지 않아 매주 1번 만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먼저, 그 주에 자신이 공부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내고, 와서 풀어보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전공공부를 최소 2번은 봤으니 자신이 공부한 부분을 문제를 내도 알고는 있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해 문제를 냈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공부한 지 좀 지난 부분이나 잘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때, 공부할 부분을 정해서 문제를 낼까도 생각했지만, 저희는 어차피 알아야하는 부분이고 모른다면 알려주자, 알려줘서 그 날 외워가도록 하자라는 쪽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를 내는 방향으로 계속 스터디를 진행 했고, 스터디가 진행될수록 점점 서로 몰랐던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② 또한 문제풀이-피드백이 끝나면 그 주에 자신이 공부하면서 상대방이 모를 것 같은 부분, 중요하다 생각한 부분에 대해 쪽지로 적어 모아, 서로 뽑아보며 즉석에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③ 타 과목 기출문제 풀이도 시작했습니다. 7-8월에 문제 풀이 반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다뤄왔기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가정, 보건, 조리, 식품가공의 문제를 8월강의 끝나자마자 2-3일정도 시간을 내 틈틈이 분류했고 바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 8. 면접 후기 (면접후기는 이 글에서는 간략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시험장 분위기, 순서추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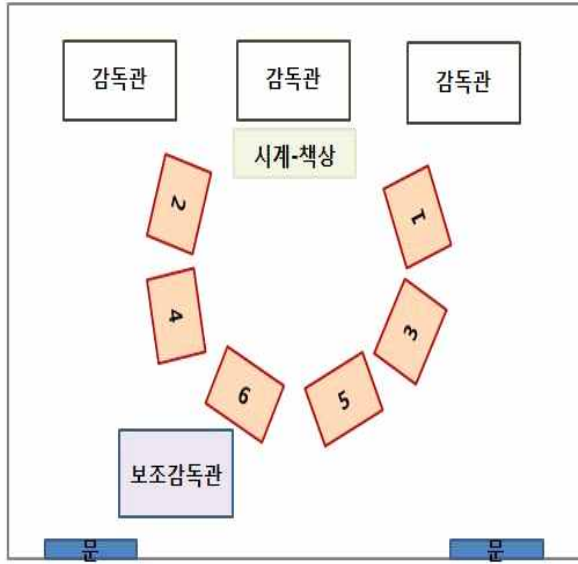
대기실에 들어가면 36명(저는 제일 마지막 대기실이어서 그런지 30명 교실이었어요)씩 각 자리에 자신의 수험번호가 붙어있는 자리에 앉아 대기합니다. 두 분의 감독관께서 면접진행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감독을 하십니다. 화장실 가는 것, 가방에 소지품 가지러 가는 것 등 거의 모든 행동이 통제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점심시간 전에는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화장실 가시고 들어가시고 아침도 시간되시면 먹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매우 추워요. 이번 시험 날은 포근한 편이지만 정장만 입고 면접을 보니 정말 추웠어요. 꼭 핫팩 두둑하게 챙기셔서 시험 볼 때 추워서 떨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 집단토의

집단토의는 1-5번까지 A조, 6-11번 까지 B조로 나뉘어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저는 B조이어서 대기할 시간이 꽤 되었기 때문에 공부한 부분을 머릿속으로 충분히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 주제별, 시책별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은지, 내가 만들었던 예상문제와 답안 등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집단토의 스터디 할 때, 6명에서 시작했지만 한 분이 사정이 있어 5명에서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 5명에서 집단토의를 하게 되었을 때, 참 감사하면서도 6명보다는 5명이 토의를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발언해야하는 팀이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 두 분이 말을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했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모든 선생님들이 처음 발언했던 순서대로 자기 차례가 오면 모두 발언을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아 이제 내 차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떨리고 긴장 되었지만, 생각보다 제 발언할 때는 당당하게 말하는 제 모습에 속으로 놀랐는데, 생각해보니 스터디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연습하다 보니 긴장해도 습관처럼 제스춰, 말투 같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 만족스럽게 집단토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집단토의 시험장 모습



- 개별면접 시험장 모습입니다.

### 3) 개별면접

개별면접 또한 스터디의 도움이 컸습니다. 처음 스터디를 할 때는 긴장 돼서 인지 눈을 많이 깜박이고 몸도 경직되고 목소리도 많이 없었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고치려고 노력했고, 같이 함께해준 스터디원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피드백하면서 하면 할수록 모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떨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떨려고 노력했는데 인사를 드릴 때 생각보다 제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나와서 생각보다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 가 보다 라는 생각에 안도하며 그 때 부터 긴장이 풀려서 하고 싶은 발언 긴장하지 않고 시간도 체크하면서 연습한 만큼 후회 없이 면접을 보고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평소 시간안배를 생각하면서 연습했더니 긴장했지만 시간도 계획한 대로 딱 맞아서 조금 여유있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감독관 한 분 정도 눈을 마주쳐 주시고 다른 분들은 채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스터디 할 때 두 분 정도로 눈을 맞추는 연습을 했는데 시험장에서는 세 분이 모두 봐주셔서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감독관과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게 눈 맞추면서 면접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준비도 1차처럼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고 상당부분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하면서 나만의 답안을 생각하고, 또 목차 그리면서 구상하고, 기회가 된다면 스터디원을 구해서 실전처럼 문을 열고 인사하는 것처럼 많이 연습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7. 응원합니다!

합격수기를 쓰다 보니 내가 정말 합격을 했구나, 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공부했지만,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간절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 포기하고 버려야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이 보장되지 못하고, 얼마나 공부해야 합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게 하는 게 이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간절한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부생 일 때 100만원정도 조금씩 모아 임용시험 공부에 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원비는 내가 내자! 라는 생각으로 돈을 모아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에 조금 더 책임감간절함을 가지자는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부족했고, 부모님에게 죄송하지만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막막하고 때론 눈물도 나고 서럽기도 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선택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간절한 지금 그 마음으로 공부하셔서 꼭 합격의 기쁨을 맞보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